

연세 옛날이야기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핀슨관

연세 옛날이야기, 그 열여덟 번째 이야기



▶ 1920년대 신축 중인 핀슨관의 모습. 기숙사로 지어진 핀슨관에는 윤동주가 머물렀다.

‘윤동주문학동산’의 돌계단을 오르면 ‘윤동주기념관’ 명패를 단 고딕 양식의 암갈색 석조 건물, 핀슨관을 마주하게 된다. 핀슨관은 100여 년 동안 우리대학교 기숙사, 강의실, 『연세춘추』와 『연세 애널스』 편집국, 법인사무처 등을 거쳐 오늘날에는 윤동주기념관이 됐다. 지난 2019년에는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770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핀슨관이 원래 기숙사였다고?!

핀슨관은 1919년 공사가 시작돼 1922년에 완공됐다. 핀슨관 건축 당시 신의주 등 북한에서 벌목한 나무와 우리대학교 뒤편의 안산에서 채석한 돌이 사용됐다. 핀슨관은 치원관, 스티븐관에 이어 신춘캠에 세 번째로 지어진 건물이다. 이후 한 국전쟁 때 치원관이 소실되며 핀슨관은 현존하는 우리대학교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 됐다.

핀슨관의 이름은 당시 우리대학교에 건물 공사비를 후원한 미국 남감리교회 총무 핀슨(William Washington Pinson)

목사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핀슨 목사는 우리대학교의 창립자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가 1908년에 쓴 『The Call of Korea』를 읽고 우리대학교에 후원금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학술문화처 기록관리팀 이원규 차장은 “미국 남감리교회의 후원은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어졌다”며 “당시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있어 핀슨 목사의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핀슨관은 6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남학생 기숙사로 설계됐다. 치원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대학교의 강의는 종로의 서울YMCA회관에서 이뤄졌다. 1918년에 치원관과 스티븐관이 세워지며 학생들은 서울YMCA회관에서 신춘캠으로 옮겨 왔다. 이 차장은 “당시 60여 명의 재학생 중 대다수는 핀슨관에서 머물렀다”며 “이후 학생 수가 증가하며 언더우드관 북쪽 부지에 기숙사를 추가로 지으려 했으나, 재정난과 일제의 탄압에 부딪혀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938년 우리대학교에 입학한 윤동주와 송몽규가 1학년과 3학년 때 핀슨관에 머

물기도 했다. 송몽규는 윤동주의 고종사촌으로 중국 간도 명동촌에서부터 함께 성장해 왔다. 윤동주기념관 최미노 학예사는 “윤동주와 송몽규는 친척을 넘어 삶의 전반을 함께한 벗”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대학교 재학 시절, 윤동주는 강처중과 함께 우리대학교 문과 교지 『문우』를 발행하고 여기에 한글로 시를 실었다. 또한 윤동주는 외솔 최현배 교수(문과대·국문)의 우리말본을 탐독하고 이양하 교수(문과대·문학)에게 개인 문예 지도를 받았다.

1939년에 발행된 『연희전문학교 일람』에는 당시 핀슨관의 생활 규정이 담겨있다. 핀슨관은 1, 2, 3층이 모두 기숙사로 쓰였으며, 방은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됐고, 층수와 인실에 따라 가격이 나뉘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고함 등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금지됐다. 또한 기숙사에서는 취사와 빨래가 금지됐다.

이후 핀슨관은 음악관, 신학관, 우리신문사 편집실, 법인사무처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왔다. 시간이 흐르며 기숙사로 쓰이기에 냉난방 및 세면 시설 부족 등의 건물 노후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핀슨관이 우리신문사 편집실로 이용되던 시절, 우리신문사는 핀슨관 앞에서 신문을 배부했다. 이 차장은 “1980년대 핀슨관 앞은 『연세춘추』를 받으려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며 “학생들은 신문을 읽은 후, 신문지를 접어 편지 봉투로 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동주가 살던 기숙사에서 윤동주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지난 2000년, 법인사무처였던 핀슨관 2층에 ‘윤동주 기념실’이 조성됐다. 이어 2013년, 핀슨관에서 윤동주기념관 현판식이 열렸다. 현판식 당시 윤동주의 장조

카인 성균관대 건축학과 윤인석 교수가 윤동주의 시 129편 등 육필원고와 유고·유품을 우리대학교에 기증했다. <관련기사 1701호 2면 ‘모교의 품으로 돌아온 윤동주의 숨결’>

지난 2018년, 박은관 동문(독문·75)이 윤동주기념관 건립 기금을 쾌척하며 핀슨관 전체를 윤동주기념관으로 바꾸는 공사가 시작됐다. 성주는 교수(공과대·건공), 염상훈 교수(공과대·건공)가 설계를 담당했다. 설계 당시 내세웠던 슬로건은 ‘지움으로 짓다’였다. 성 교수는 “건물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면 문화재로서 핀슨관이 지닌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었다”며 “슬로건이 보여주듯이, 핀슨관의 변형을 최소화해 건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핀슨관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핀슨관 1층 계단의 벽이다. 성 교수는 “내벽의 페인트칠을 벗겨내자 또 다른 페인트 벽이 나왔다”며 “겹겹이 형성된 페인트의 층은 지층처럼 건물의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바닥의 시멘트를 긁어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벽과 바닥 사이의 공간에서도 겹겹이 층을 이룬 시멘트와 페인트를 볼 수 있다.

기숙사를 전시 공간으로 바꾸며 각 방의 외벽에 통로를 뚫었다. 출입구가 하나였던 기숙사 방에 추가 통로를 설치해 관람객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성 교수는 “관람객이 외벽의 선형 동선을 따라 이동할 때 창밖의 아름다운 광경을 자연스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층 계단 옆에는 원본 전시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만들었는데, 이는 핀슨관이 법인사무처로 쓰이던 당시 설치됐던 금고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으로 인해 지난 2021년, 윤동주기념관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했다.

학교를 졸업한 동문을 위해 단독 기념관을 설립한 것은 국내에서 윤동주기념관이 유일하고, 세계에서든 유례가 많지 않다. 최 학예사는 “학교 설립자를 위해 만들어진 건물은 있어도 동문을 위해 설립된 건물은 흔치 않다”며 “우리대학교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윤동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윤동주기념관에서는 우리대학교 구성원으로 이뤄진 문화자원봉사자(docent)의 해설이 평일 오후 1시와 2시에 총 두 번 진행된다. 일반 관람객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하지만, 우리대학교 재학생·동문·교직원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현재 윤동주기념관은 월평균 약 200명 정도가 방문한다. 윤동주기념관에 방문한 정영수(생다·17)씨는 “윤동주 시인의 생활이 눈에 그려지는 듯했고 특히 꼭대기 층의 기숙사 책상에서 옛 정취를 느꼈다”며 “내부 공간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더 일찍 방문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동주기념관은 상설전시뿐 아니라 매년 윤동주와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도 운영한다. 오는 12월 5일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는 북한도 사진전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동주의 고향이 북한도이기 때문이다. 매년 2월 16일에는 윤동주의 서거일에 맞춰 추모식이 진행되기도 한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별 헤는 밤」의 구절이다. 높은 늦가을 하늘 아래, 윤동주를 향한 연세인의 사랑이 무르익는다.

글 지혜진 기자 bodo.harvard@yonsei.ac.kr

김준재 기자 bodo_suzu@yonsei.ac.kr

<사진제공 학술문화처 기록관리팀>

한강 작가가 말하는 ‘작별하지 않는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한강 작가 북콘서트 열려

지난 16일, 언더우드기념도서관 7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강 작가 북콘서트가 열렸다. 한 작가의 2021년 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북콘서트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한 작가는 우리대학교 국문학과 89학번으로,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붉은 땀』으로 등단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썼다. 한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한국 작가 최초 프랑스 메디치상* 외국문학상을 수상했다.

꿈, 모비, 눈, 4.3 사건…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탄생했다

한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구상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북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한 작가는 지난 2014년 5월 『소년이 온다』를 발표하고 나서 꿈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 책의 첫 두 페이지 내용이 실제로 한 작가가 당시 썼던 꿈이었다. 한 작가는

도입부를 낭독하며 “이 꿈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에서 더 진척된 소설을 언젠가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등성이에서부터 이편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침묵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길 침묵 정도의 굽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침묵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맞고 있는 것 같았다.
묘비가 여기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이 다 묘비인가.
『작별하지 않는다』 중

꿈을 꾸 이후 한 작가가 소설을 빠르게 구상해낸 것은 아니었다. 한 작가는 이후

거의 3~4년 정도를 ‘꿈’ 다음이 뭘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떠난 아이슬란드 여행에서 한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목을 생각해 냈다. 한 작가는 “아이슬란드 한 묘지에서 발견한 묘비에 맞춘 두 손이 새겨져 있었다”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손을 맞잡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보고 문득 ‘작별하지 않는 구나’라는 문장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꿈에 이어서 쓰게 될 소설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지난 2018년이 돼서야 『작별하지 않는다』의 윤곽을 그리게 됐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1948년에 시작된 제주 4.3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한 작가는 “인류가 아주 오랜 역사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제노사이드**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더듬어 가고 싶었다”고 전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전체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는 ‘눈’이라는 소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작가는 “4.3 사건은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주제이지만 이야기를 가능한 한 가볍고 부드러운 것들로 그리고 싶었다”며 “눈의 부드러움, 차가움, 가벼움 등을 소설의 중요한 감각으로 묘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소설인 만큼 자료 수집도 중요했다. 한 작가는 소설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자료를 소개했다. 제주 로컬 잡지 『이닝』부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 여러 책 일부를 발췌해 함께 읽었다. 그중 한 작가는 『아카이브 취향』의 한 구절을 읽으며 “역사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들여다보는 일이고, 현재의 대화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역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죽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과거를 이야기할 어법을 찾아내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아카이브 취향』 중

한 작가는 콘서트 말미에서야 ‘작별하지 않는다’는 말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밝혔다. 한 작가는 “작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별을 고하지도, 행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라며 “예도를 멈추지 않고, 결코 끝내지 않겠다는 결의인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9년 정도 역사적 사건을 다뤘기에 앞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는 글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순간주의적인 삶을 살며 순간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메디치상: 공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니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제노사이드: 특정 집단 구성원을 절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집단 학살

글 김대권 기자 bodo.shyboy@yonsei.ac.kr